

# 시스템 반도체 우수 인력 양성한다

### 전북대, 13개 대학·관련 기업 등 협약 체결... 반도체 설계 특화 과목 추가 개설·졸업 즉시 실무 투입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를 비롯한 13개 대학과 반도체 설계 전문가 및 기업 등이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성남 한국반도체사업협회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에는 전북대를 비롯한 국내 13개 대학과 반도체 설계 전문가(팹리스),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이 참여했다.

전북대 등 13개 참여대학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이룰 핵심인재를 키우기 위해 수요기반의 교육과정 및 교재를 활용하고, 산학실습 프로그램, 산업체 현장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인재를 육성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북대는 13개 대학을 대표해 전북대IDEC캠퍼스가 주관이 돼 학부생 대상으로 20여 년간 운영해 온 설계전공트랙과정을 우수



지난 25일 성남 한국반도체사업협회에서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13개 대학과 반도체 설계 전문가 및 기업 등이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관 협약을 체결했다.

운영 사례로 발표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전북대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과정을 가장 먼저 추진해 온 대학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13개 대학으로 확대되고 관련 교육과정을 좀 더 활발히 개발·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북대는 기존 반도체설계트랙과정에 반도체 설계 특화과목(반도체 공정이론, 반도체 설계 및 제작 등)을 추가로 개설해 이를 이수한 학생들이 반도체설계기업에 취업 후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곧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 가져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문상담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의 업무에 대한 동기 증진 및 실천 방안 모색, 내담자의 잠재된 발달 가능성을 키워주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지난 6월 28일~29일까지 부안 모항해나루 가족호텔 세미나실에서 학교 교육지원청 전문상담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서조절 장애의 원인과 정서처리, DBT 스킬 훈련을 통한 위기 관리, 적극적 수용과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기웠다.

변증법행동치료(DBT)란 인지행동치료 기법 중 하나로 강렬한 감정을 회피하거나 통제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치료의 첫 단추로 삼는다.

‘미움행진, 고통감내, 정서조절, 대인관계 효율성’ 등의 행동분석을 통해 우울과 불안 증세가 극에 달해 자살·자해 충동을 느끼는 학생들이 삶의 지혜를 나누고 가지 있는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돕는 기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담자의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한 맞춤형 상담 가능 강화와 DBT 실습을 통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를 비롯해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4개 거점국립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6월 25일 독도 탐방을 실시했다.

## 화합과 나라사랑의 마음, 독도에 울려퍼져

### 4개 거점국립대 학생 120명 '나라사랑 독도사랑 국토탐방' 실시

거점국립대 학생들의 화합과 나라사랑의 마음이 독도에 울려퍼졌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를 비롯해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4개 거점국립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독도 탐방을 통해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라 사랑 실천과 화합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북대와 경북대가 교

류 차원에서 시작한 이후 올해로 7년째다. 대학별로 40명의 학생과 교직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강연과 트래킹, 울릉도 및 독도 탐방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은 행사 첫 날 함께 모여 독도에서 실렘할 플래시몹을 함께 기획 연습했고, 28일은 독도 땅을 밟아 태극기를 손에 들고 미리 연습한 울릉에 맞춰 애국가를 부르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렸다.

이를 통해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거점국립대학 학생들 간 우호 증진과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울릉도 생태탐방을 비롯해 울릉도 향토사료관 방문, 해안 트래킹 등을 통해 대학 간 우의를 다지고 독도사랑, 나라사랑 정신을 키웠다.

한편, 참여 학생들은 이날 독도에서의 플래시몹 등 행사 전반을 동영상으로 담아 SNS 등을 통해 국내외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바람직한 식생활 공감대 형성 공모전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행복한 학교급식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바람직한 식생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학교급식을 통한 배려와 감사·환경 보호 실천을 위해 ‘행복한 학교급식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그림일기(초 1~3학년), 포스터(초4~6학년/중·고생), 슬로건(초·중·고 및 교직원), 캠페인사진(초·중·고 및 교직원) 등 4개 분야다.

공모주제는 △덜 달게·덜 짜게 먹기, 채소·과일 많이 먹기, 식중독 예방 등을 담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잔반 제로 급식 실천 등을 담은 ‘환경도 생각하는 학교급식’ △즐거움 점심시간, 감사하며 먹기, 질서 지키기 등의

내용을 담은 ‘함께여서 행복한 학교급식’을 내용으로 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1일부터 28일까지로 우편(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교육청 학교급식팀) 또는 이메일(luckysu@jedu.kr)로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주제성, 창의성 및 독창성, 표현력, 활용성 등을 평가한 뒤 오는 8월14일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교육감상과 문화상품권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9월에 있을 바른식습관 교육 캠페인 전이나 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교육신문 등의 홍보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또는 블로그(<http://blog.jb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장애인체육회, 경기력 향상 위한 워크숍 개최

전북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 28일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체육 역량강화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내 종목별 경기단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체육계 심포럼·인권침해 관련 예방교육, 리더십 함양 및 스트레스 제어를 위한 전문강사의 강의, 투명한 단체운영 및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교육 등 장애인체육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기단체의 조직 구성에 대한 미비사항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선수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경기단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전문교육도 진행했다.

또한, 상벌제에 대해 심각성을 알리고, 체육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참석한 경기단체 관계자들은 체육회에 바라는 사항으로 전문 지도자의 배치와 훈련환경을 개선하는 시설 확충, 보안을 요청했다.

또 오는 10월 열리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비해 필요한 요구사항과 훈련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였다. /장은성 기자

## 전북도박물관관리센터, 문화체험프로그램 실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센터장 오남경, 이하 전북센터)는 지난 6월 27일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프로그램(가족공예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공예전문가를 초청해 전북센터 교육실에서 가족지갑 만들기 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도박중독자와 가족의 여가활동 개발 및 도박문제로부터의 회복을 돕고자 마련됐다.

오남경 센터장은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도박중독자와 가족들이 일상의 즐거움을 되찾고 나아가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박중독자와 가족들이 도박문제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도박문제 전문 상담기관이다. 도박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은 누구나 365일 24시간 국번 없이 1336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과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